

지역민을 위한 지역공영방송 역할 모색 간담회

일시: 2022년 11월 9일(수) 오후 5시 30부

장소: 부산KBS총국 대회의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민을 위한 지역공영방송 역할 모색 간담회

부산민언련은 지역소멸, 지역위기의 시기에 지역공영방송은 지역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지역의 학계, 시민단체, 시청자, KBS부산 총국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9일(수), 오후 5시 30분~7시
KBS부산 대회의실 (8층)

사회: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발제:

1. KBS부산 9월 보도 모니터 결과(부산민언련 문미진 모니터팀장)
2. 지역공영방송의 역할과 구조적 한계(동아대 김대경 교수)
3. 좋은 지역방송의 사회적 효과(동명대 이정기 교수)

자유토론: KBS부산의 지역공영방송 역할 강화 모색

참여: KBS부산 보도·편성국, KBS부산 시청자위원,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및 회원, 시민단체, 관심있는 부산시민

2022년 9월 KBS부산 <뉴스7>, <뉴스9> 모니터 보고서

부산민언련 모니터팀장 문미진

1. 배경

수도권 과밀화와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그에 따른 고령화. 지역언론은 떠나는 청년과 남아 있는 노인을 대비시키며 부산의 위기를 말하고 미래가 없는 도시라 평가한다. 그렇기에 ‘가덕신공항’, ‘2030부산엑스포’,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이야말로 부산이 ‘제2의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도약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통계청의 ‘2021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인구는 331만 3,000명이다.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 역시 ‘위기’ 상태이고, 최근 불거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녹조 오염으로 인한 식수원 수질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지역에 사는 331만 시민의 삶과 건강, 안전이 과연 ‘제2 도시’에 걸맞은 수준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언론 권력의 핵심은 ‘선택’에 있다. 부산의 16개 구·군에 사는 331만 부산시민 누구의 어떤 목소리를 선택해 보도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 부산에 있었던 많은 일 중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시기에 이러한 언론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진다. 선거후보자와 유권자의 매개자로서 후보자의 공약과 쟁점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간 축적해 온 지역 의제를 선거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졌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부산지역언론의 선거 보도를 모니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KBS부산은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다른 언론에 비해 더 많은 양질의 선거 보도를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선거 기사의 44%가 단신보도였고, 선거 기획도 14건으로 부산MBC 2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단 방송팀은 KBS부산의 선거 보도에 대해 “선거 일정 및 선거 사무와 관련된 단순 정보를 많이 전달했”다며 “지방선거 기획에 소극적으로 임해 지역대표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2. KBS부산 9월 뉴스 집중 모니터 개요

이에 부산민언련은 KBS부산 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KBS부산의 대표 뉴스인 <뉴스7>과 저녁메인뉴스인 <뉴스9>의 2022년 9월 방송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했다.

뉴스 주제, 보도 순서, 인터뷰이, 주요 정보원, <뉴스7>과 <뉴스9> 기사 중복 여부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모니터했다. 뉴스 주제, 보도 순서 등은 보도의 지역성을, 인터뷰이와 정보원 등은 보도의 다양성 그리고 뉴스 제시 수준은 심층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항목으로 설정했다(참고. [부록]).

먼저, <뉴스7>과 <뉴스9> 개별 분석에 앞서 9월 한 달 KBS부산 <뉴스9>와 <뉴스7>의 방송 횟수와 결방 사유를 살펴봤다. KBS부산 <뉴스9>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8차례 방송했다. 9월 5일과 6일은 태풍 북상에 따라 특보로 대체됐다. KBS경남과 KBS제주는 9월 6일에 <뉴스9>를 결방 없이 진행했고, 'хин남노'로 인한 해당 지역 피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KBS부산 <뉴스7>은 주4회(월~목) 40분간 방송한다. 역시 9월 5일과 6일은 태풍특보로, 12일은 추석 연휴로 결방했다.

	일수	기사 건수	뉴스7과 뉴스9 중복 기사 건수	일 평균 기사 건수
KBS부산 <뉴스9>	28	209(75/132/2)	72(53/19)	7.4 (2.6/4.7/0.07)
KBS부산 <뉴스7>	14	195(118/33/44)		13.9 (8.4/2.3/3.1)

[표 1] 2022년 9월 KBS부산 <뉴스9>, <뉴스7> 보도 건수 *(리포트/단신/그 외 형식)

KBS부산 <뉴스7>과 <뉴스9> 보도 일수를 통해 KBS지역총국 내에서도 재난 발생 시 지역뉴스 결방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도 2022지방선거보도민언련감시단은 KBS지역국들이 지역프로그램 시간대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한 데 대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¹⁾ 당시에도 KBS 18개 지역국 중 4개 지역국(대전, 원주, 전주, 춘천)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하지 않아, 지역국마다 선거후보토론 방송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시기 후보자 토론회, 재난(태풍, 폭우) 등에 의한 지

1) 2022지방선거보도민언련감시단 (2022.5.16). 공동성명 지역시간대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 방송한 KBS 지역국, 지방선거 역행 말라.

역방송 결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총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역방송이 결방되는 것은 지역민 권리 침해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KBS부산 <뉴스7>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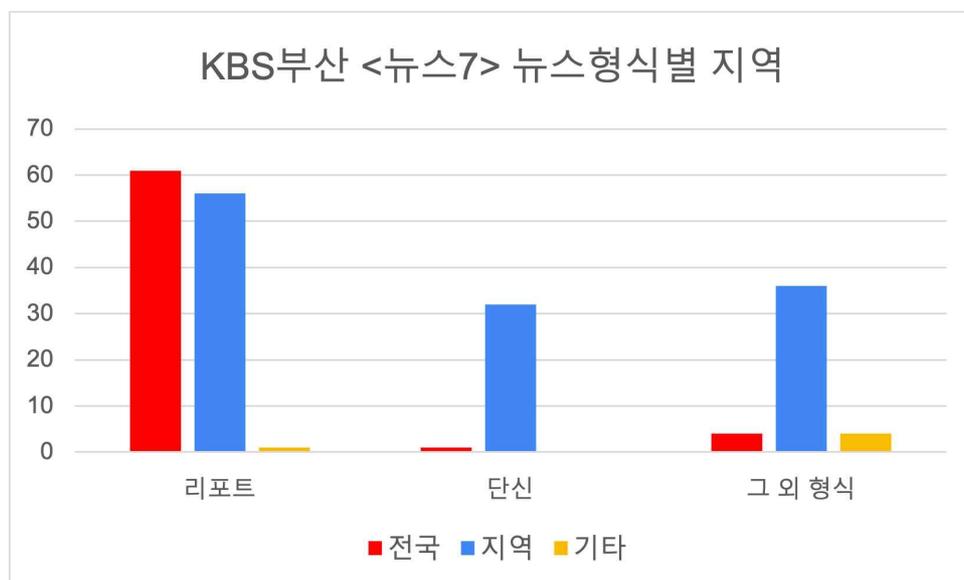
KBS는 2020년 2월부터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주중(월~목) 저녁7시뉴스 제작과 편성 권한을 지역총국에 보장하고 있다. KBS부산총국이 자율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해 7시 뉴스 40분 전체를 지역의 시각에 맞게 제작하고자 함이 본래의 취지이다. 더불어 지역언론으로서 지역총국의 역할 확대에도 기대가 모였다.

이에 KBS부산 <뉴스7>의 9월 모니터는 지역성에 주목했다. 지역방송의 '지역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모니터에서는 정보의 출처가 방송권역 내 이거나, 기자의 소속이 지역국인 경우를 '지역소식'으로 분류해 일차적으로 '지역성'을 보고자 했다. <뉴스7>의 리포트를 전국, 지역, 기타(해외 등)로 나눠 건수, 비중, 보도 순서, 보도 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리포트 기사에서 KBS부산 <뉴스7>만의 지역성 보이지 않아

KBS부산 <뉴스7>은 9월에 14차례 방송을 통해 총 195건의 소식을 전했다. 뉴스 형식은 리포트, 단신, 스튜디오, 현장 중계, 사전제작 영상, 캐스터 등 6가지의 경우로 분류했다. 일평균 13.9건을 보도했으며 이중 리포트 기사가 8.4건, 단신 기사가 2.3건, 그

외 형식(스튜디오, 현장 중계 등)이 3.1건이었다.



[그림 1] KBS부산 <뉴스7> 뉴스형식별 전국/지역/기타 소식 비중

뉴스 형식별로 전국, 지역, 기타 소식 비중을 살펴봤다. <뉴스7>의 리포트 기사는 118건이었다. 전국소식 61건, 지역소식 56건, 기타 1건이었다. 리포트로 전달한 소식의 소재지는 전국과 지역이 큰 차이가 없었다.

단신 33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소식이었다. 전국소식 단신 1건은 <검찰,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9/1)였다. KBS부산 <뉴스7>에서 단신소식은 중후반부에 배치되는데, 해당 소식은 3번째에 배치해 눈에 띄었다. 전반부에 배치된 다른 단신 소식은 부산 코로나19 현황으로, 전국 코로나19 현황을 다룬 리포트 기사 뒤에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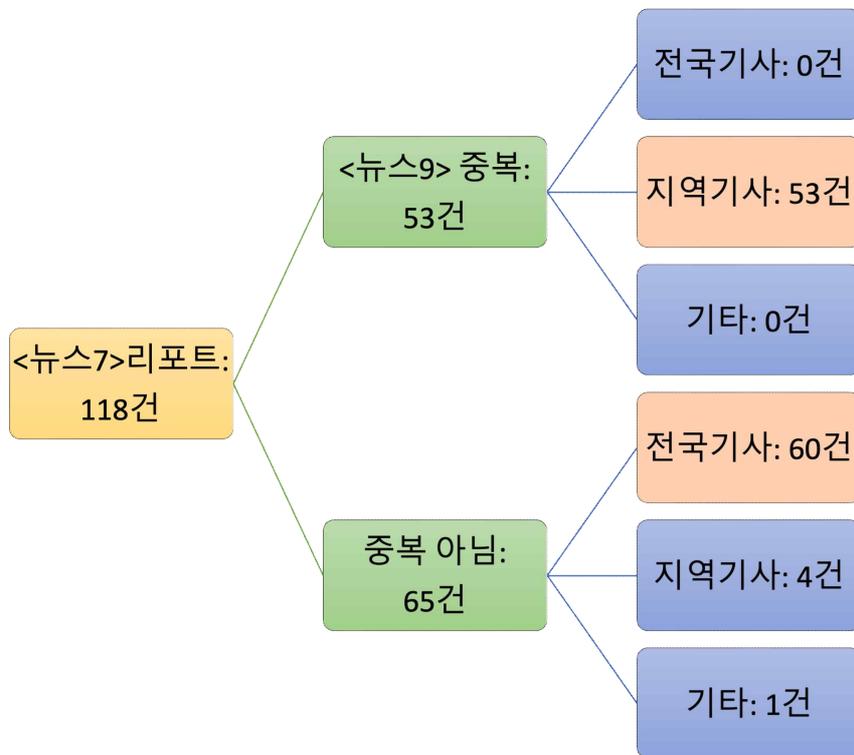
그 외 뉴스 형식(스튜디오, 현장 중계, 사전제작 영상, 캐스터 등)은 44건이었고, 지역소식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참고 [그림 1]).

KBS광주 <뉴스7>의 지역화를 인터뷰와 참여관찰 방식으로 연구한 한선(2020)²⁾은 <뉴스7>의 과제로 <뉴스9>와의 관계 설정 고민을 우선해 꼽았다. 제작 비중만으로 볼 때 메인뉴스는 <뉴스7>으로, <뉴스9>는 <뉴스7>에 나갔던 주요 뉴스 중 필요한 것을 다시 송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시청률 면에서는 <뉴스9>가 더 높아, 보도국 내에서도 메인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2) 한선 (2020). KBS <뉴스 7>의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의 가능성: 뉴스룸의 생산 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송문화연구>, 32권 2호, 55-89.

〈뉴스7〉과 〈뉴스9〉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는 KBS부산에서도 나타났다. KBS부산의 〈뉴스7〉과 〈뉴스9〉 간 **기사중복률**을 살펴봤다. 〈뉴스7〉 리포트 118건 중 〈뉴스9〉와의 중복리포트 53건 모두 지역기사였다. 〈뉴스9〉와는 다른 〈뉴스7〉만의 지역 기사는 중복되지 않은 리포트 65건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리포트 65건 중 60건이 전국소식 기사였다.

2022년 9월 시점에서 〈뉴스9〉와는 다른 〈뉴스7〉만의 지역성은 리포트 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7〉은 지역성을 리포트보다는 그 외의 뉴스 형식(사전제작 영상, 캐스터 등)에서 채워나가고 있다(참고 [그림 2]).



[그림 2] KBS부산 〈뉴스7〉 리포트를 〈뉴스9〉와의 중복여부, 지역기반여부 시각화

〈뉴스9〉가 아닌 〈뉴스7〉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지역기사 4건을 살펴봤다. 부산 외 지역으로는 울산과 충북 충주가 있었다. 두 소식 모두 뉴스 주제 분류상 사건/사고에 해당했다(참고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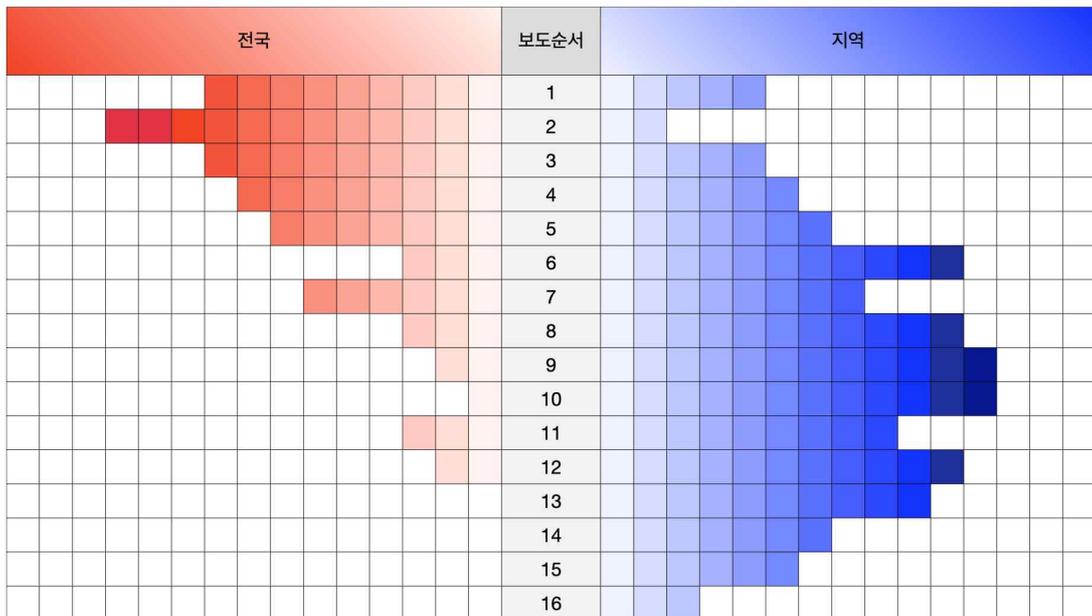
전국 방송 뉴스에서 지역의 소식은 각종 재난, 전대미문의 범죄가 발생한 ‘장소’로만 소비돼 왔다. 부산지역의 시각으로 다른 지역의 소식을 소개하면 어떨까? 의미 있는 조례 제정, 부산과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 부산지역의 시각으로 다른 지역을 조명하는 〈뉴스7〉을 기대해 본다.

지역	기사 제목	보도 주제
울산	울산 실종자 사망 확인...사망 11명 실종 1명	사건사고
부산	매미 이후 최악 피해 송도해수욕장...상인들 '한숨'	사건사고
부산	부산 해운대 초고층 역대 최대 '빌딩풍'	사회일반
충북	두 중학생 극단 선택 사건...성범죄 의붓아버지 25년형 확정	사건사고

[표 2] KBS부산 <뉴스9>와 중복되지 않은 <뉴스7>의 지역기사 제목 목록

최다 첫 소식은 '증사'...KBS부산 <뉴스7>만의 의제 설정 필요

KBS부산 <뉴스7>만을 위한 자체 제작 리포트를 늘리는 것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라면 편성은 어떨까? <뉴스7>의 보도 순서에 따른 전국/지역 소식 건수를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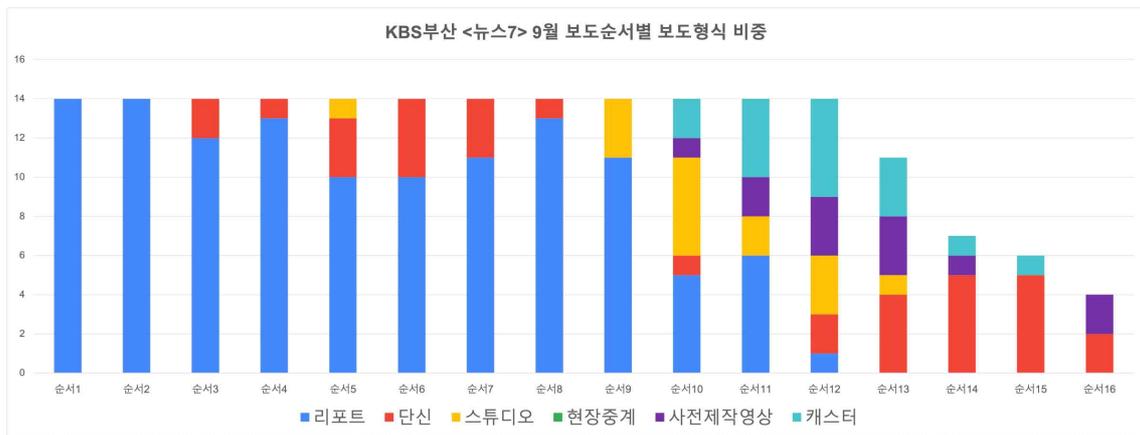
[그림 3] KBS부산 <뉴스7> 보도순서별 전국/지역 소식 건수

[그림 3]을 보면 전국소식은 뉴스의 전반부에, 지역소식은 중후반부에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순서에는 전국 9건, 지역 5건이었고, 두 번째 순서에는 전국 12건, 지역 2건이었다. <뉴스7>의 전반부에는 전국소식이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9>의 15~20분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한 지역성의 심층성, 다양성을 내세우며 40분 편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신문으로 치면 1면에 해당하는 뉴스의**

전반부(보도 순서 1~3)에 전국소식의 비중이 더 큰 점은 아쉬웠다.

KBS부산 <뉴스7>의 중후반부에 지역소식이 배치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를 보도 형식과 연결해 봤다. 뉴스의 중후반부(보도 순서 9부터 보도 순서 16까지)부터 기존의 리포트, 단신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뉴스 형식으로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형식은 스튜디오, 사전제작 영상, 캐스터 전달 등이었다(참고 [그림 4]).



[그림 4] KBS부산 <뉴스7> 보도순서별 보도형식 비중

앞서 뉴스 기사가 다루고 있는 소재지에 따라 전국뉴스인지, 지역뉴스인지를 분류했다면, 전국뉴스이지만 부산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성’을 담고 있는 소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 <뉴스7>의 첫 소식을 살펴봤다(참고 [표 3]).

지역 기반 소식의 뉴스 주제는 사회일반, 사건·사고로, 9월의 이슈인 가을 태풍과 추석과 관련이 있었다. 전국기반 소식의 뉴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일반(코로나19), 사건 사고였다. 9월 20일과 21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소식을 첫 순서로 배치했다. **가장 많은 전국소식은 ‘환율과 증시’로 4차례 첫 소식으로 보도했다.** ‘환율과 증시’ 소식을 첫 소식에 배치한 14·26·28일엔 전국뉴스 <뉴스7>도 이를 순서1·2에 배치했다.

9월 한 달의 모니터 결과를 두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9월 한 달, KBS부산 <뉴스7>의 첫 소식을 통해 지역의제를 드러낸 경우는 9월 27일자 <관광특구 파고드는 ‘오피스텔’…무늬만 상업지역?>과 9월 29일자 <도시철도 노사 최종 교섭 중…내일 파업 예고> 정도였다.

전국뉴스 <뉴스7>과 비교해보면, 전국뉴스 중에서 정부 비판(비속어, 외교 등), 전국구 사건·사고(스토킹 살인사건 등) 소식은 배제했고, 대통령의 외교순방 일정이나 증시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를 첫 소식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9월 1일 [전국]	9월 7일 [울산]	9월 8일 [부산]
		
9월 13일 [전국]	9월 14일 [전국]	9월 15일 [전국]
		
9월 19일 [부산]	9월 20일 [전국]	
		
9월 21일 [전국]	9월 22일 [전국]	9월 26일 [전국]
		
9월 27일 [부산]	9월 28일 [전국]	9월 29일 [부산]

[표 3] KBS부산 <뉴스7> 9월 첫 소식 헤드라인 모음

그런가하면 9월 21일 자 KBS <뉴스9>에서 단독 보도한 <'BTS콘서트 비용' 기업에 협찬 요청> 소식도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이 소식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에 대한 내용으로 부산지역과 관련이 있었지만, KBS부산은 이 소식을 <뉴스7>에 배치하지 않았다. 전국 차원에서는 한 차례 보도로 일단락되는

사안일지라도, 40분 동안 지역소식을 전하는 <뉴스7>을 통해 콘서트 추진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순 없었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성 구현은 ‘뉴스쇼’ 형태로…연성화된 지역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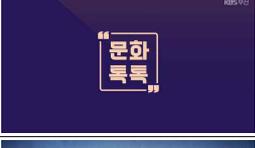
앞선 논의를 통해 KBS부산 <뉴스7>이 전국 차원에서 ‘선택’한 리포트에 부산의 시각이 담겨있다거나, 자체 ‘제작’한 리포트를 통해 부산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9월만 놓고 살펴봤을 때 **KBS부산 <뉴스7>의 지역성은 전통적인 기사 형식이 아닌 ‘뉴스쇼’의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부산 <뉴스7>이 뉴스의 중후반부에 편성하고 있는 코너로는 ‘대담한K’, ‘풀뿌리해양K’, ‘백TO THE부산’, ‘현장속으로’, ‘키워드이슈’, ‘문화톡톡’, ‘부산人터뷰’, ‘영상K’를 확인할 수 있었다(참고 [표 4]).

과거 부산의 모습을 ‘특정 사안이나 이슈’(추석풍경, 택시 등)에 맞게 재편집하는 ‘백TO THE부산’과 부산지역의 전시, 축제 등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문화톡톡’, ‘영상K’는 코너 형식 자체만으로 ‘연성 코너’라 평가할 수 있었다.

‘부산人터뷰’, ‘키워드이슈’, ‘현장속으로’는 아이템이나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9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대체로 문화인사 인터뷰(시인, 문화공간 대표), 신조어 소개로 채워졌다.

코너명	주체	설명
대담한K	스튜디오 (앵커)	주요 지역 현안 혹은 공공기관 사업과 관련해 지역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눔
풀뿌리 해양K	캐스터	해양 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함
백투더 부산	사전제작영상	과거 부산의 모습을 ‘아이템’ 중심으로 편집

현장속 으로		사전제작영상	주요 지역 현안 혹은 행사, 활동 현장 취재물
키워드 이슈		캐스터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단어를 매개로 설명하거나 신조어나 합성어의 의미를 전달
문화톡톡		사전제작영상	부산지역의 전시,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현장 취재물
부산 인터뷰		사전제작영상	부산 지역 인사 인터뷰
영상K		캐스터	유산, 문화, 풍경 등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영상물, 인물 인터뷰 포함

[표 4] KBS부산 <뉴스7> 자체제작 코너

KBS부산 <뉴스7> 코너뉴스 43건³⁾을 뉴스 주제별로 살펴봤다. 교육/과학/문화/예술/스포츠 분야 기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일반이 8건, 생활정보 7건, 경제/산업 6건, 국제/해외와 지역정치가 각 2건이었다(참고 [표 6]).

확보된 40분의 시간을 복잡한 사회 이슈나 지역 밀착 이슈 보다는 지역의 문화 행사에 할애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담한K’는 특정 이슈에 대해 해당 분야 관계자 또는 기자가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코너 성격상 사안의 심층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했다. 뉴스 주제를 보니 대부분 사회일반 소식이었다. 부산의 행사와 공공기관 개관 소식을 대담 형식을 통해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예.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우체국 복지 등기 사업 등).

특히 대담한K 9월 15일 자 <부산시 민선 8기 공약자문평가단 본격 출범>이 눈에 띄었다. 해당 소식은 9월 14일 <뉴스9>, <뉴스7>에서 ‘단신’으로 소개한 내용이였다. 뉴스 시간의 제약으로 ‘단신’으로 소개했지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대담한K’를 통해 심층적

3) KBS부산 <뉴스7> 뉴스형식을 리포트, 단신, 그 외 형식으로 분류했다. 그 외 형식은 총 44건이었고 이중 1건 <부산 태풍 피해는 얼마나?...복구는?>(9/7)이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와 정보를 전달한 경우였다. 그 결과 이 1건을 제외한 43건이 코너뉴스로 집계됐다.

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참고. [표5]).

대담한K	관련 기사
2022 부산비엔날레 개막...‘물결 위 우리’	[리포트] ‘물결 위 우리’ 부산비엔날레 대장정 시작 [문화톡톡] 부산비엔날레...미술관 밖 미술관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요구...부산가톨릭대 쟁의	해당 사항 없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5일 개막	[리포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바람의 향기’
역대 최대 ‘빌딩풍’ 측정...대책은?	[현장연결] 빌딩풍 월파 피해 우려...이 시각 해운대 [리포트] 부산 해운대 초고층 역대 최대 ‘빌딩풍’ [단신] 초고층 엘시티 관측 이래 최고 ‘빌딩풍’ 관측
위기의 공공언어...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많아	[리포트] 공공언어 훼손...부산이 가장 심각 [리포트] 공공언어 도시 ‘울산’...“언어는 권리”
부산시 민선 8기 공약자문평가단 본격 출범	[단신] 부산시 민선8기 공약자문평가단 본격 활동
‘인권 침해’로 번지는 ‘디지털 노동 감시’	해당 사항 없음
자립준비청년의 비극...지원금·정책 정비 필요	해당 사항 없음
경남.울산 잇단 제동...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	[단신] 부울경 특별연합 위기...단체장 만남 쉽지 않을 듯 [리포트]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위기...3개 시도 입장 차 커
부산고, 29년 만에 봉황대기 우승	[단신] 부산고, 29년 만에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우승
휴가와 업무 결합 ‘워케이션’...부산시도 주목	해당 사항 없음
부산, 조정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전망은?	[리포트] 부산 조정지역 해제...주택 거래 ‘숨통’
"위기가구 발굴, 힘 보태다"...우체국 '복지 등기 사업'	해당 사항 없음
부산 여성폭력대응센터 개소...의미는?	해당 사항 없음

[표 5] <뉴스7> 대담한K 9월 목록과 관련 기사 유무

동일한 맥락에서 9월 7일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요구...부산가톨릭대 쟁의>(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사무국장 출연)와 9월 19일 <‘인권 침해’로 번지는 ‘디지털 노동 감시’>(변호사 출연), 9월 20일 <자립준비청년의 비극...지원금·정책 정비 필요>(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연)편은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로부터 듣는 형식에 기자의 리포트가 결합되었으면 사안이 좀 더 입체적으로 전달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담한K의 경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사안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도의 심층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출연자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전달력에 차이가 느껴졌다.

또 대담한K의 패널을 살펴봤다. 9월 ‘대담한K’ 14건의 패널을 살펴보니 **학계(교수, 연구원)가 5건**, **부산시 관계자(집행위원장, 센터장 등) 4건**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 1건, 민주노총 1건, 변호사 1건, 기업 대표 1건, 야구감독 1건이었다.

뉴스 주제	건수	아이템/이슈
전국정치	0	해당 사항 없음
국제/해외	2	세계 수산물 생산, 수에즈운하 통행료
지역정치	2	부산시 공약자문 평가단, 부울경 특별연합
경제/산업	6	바닷모래세척기술, KMI복방물류리포트, 환율, 조정 지역 해제, 파킹통장, 해상 드론 기술
사회일반	8	불법 해루질, 대학 청소노동자, 청년취업난, 빌딩풍, 디지털 노동 감시, 자립준비 청년, 우체국 복지 등기 사업, 부산여성폭력대응센터 개소
교육/과학/문화/ 예술/스포츠	18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디자인제, 추석 음식, 공공언어, 개인전시, 시인, 미술관, 통도사, 봉황대기 우승, 가을 축제, 위케이션, 썸(SUP), 디자인, 문화공간, 씨네지엄, 택시, 서점, 가을나들이
사건사고	0	해당 사항 없음
생활정보	7	생활해양예보, 국제연안정화의날, 해변쓰레기, 모디슈머

[표 6] KBS부산 <뉴스7> 뉴스코너 주제별 보도건수와 보도아이템

4. KBS부산 <뉴스9> 분석 결과



KBS부산 <뉴스9>의 보도 형식은 세 가지로 분류했다. 기자가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리포트’, 기자의 리포트 없이 앵커가 전달하는 ‘단신’, 실시간으로 현장을 연결하는 ‘현장중계’이다. 뉴스 유형은 단순 발생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와 기자의 추가 취재가 이뤄진 ‘해설기사’, 그리고 앵커가 기획이라고 직접 언급하는 ‘기획기사’로 분류했다.

9월에는 총 209건의 기사가 있었고 이 중 63.1%가 단신기사였다. 9월 기획기사는 없었다(참고 [표 7]).

보도형식	<뉴스9> 건수	뉴스유형	<뉴스9> 건수
리포트	75	스트레이트	204
단신	132	해설기사	5
현장중계	2	기획기사	0

[표 7] KBS부산 <뉴스9> 보도형식과 뉴스유형별 건수

경제/산업 뉴스 주제 부각...KBS부산만의 의제설정 보이지 않았던 9월

뉴스 주제별, 형식별 보도 건수를 살펴봤다.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소개된 뉴스는 사회일반 소식(71건)이었으나 77.4%가 ‘단신 형식’으로 보도돼 중요하다거나 강조된 뉴스 주제는 아니었다. 리포트 형식으로 가장 많이 소개된 소식은 경제/산업이었다(참고

[표 8]).

〈뉴스9〉의 기사를 인터뷰이를 포함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로 분류해 살펴봤을 때, 경제/산업 분야가 눈에 띄었다. 전체 기사 209건 중 ‘인터뷰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62건이었고 이중 경제/산업 분야 기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형식 뉴스주제	리포트	단신	현장중계	총합
전국정치	1	5	0	6
국제/해외	0	0	0	0
지역정치	15	20	0	35
경제/산업	18	19	0	37
사회일반	16	55	0	71
교육/과학/문화 /예술/스포츠	10	5	0	15
사건/사고	15	23	2	40
생활정보	0	5	0	5
기타	0	0	0	0
총합	75	132	2	209

[표 8] KBS부산 〈뉴스9〉 뉴스주제별 보도형식 건수

경제/산업 분야 기사의 인터뷰이로는 학계(교수, 연구원 등)가 7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관료(공공기관, 정부 등)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4회, 일반시민 3회, 전문가(의료인,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가 2회 등장했다.

경제/산업 기사의 정보출처를 살펴봤다. 공공기관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정부 5회, 기업 3회, 경제인단체 2회, 부산시 2회였다.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은 각 1회였다.

KBS부산 〈뉴스9〉가 리포트로 가장 많이 전달한 경제/산업 분야의 인터뷰이와 정보출처를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과 정부 발표를 주요 정보원으로, 교수와 관료 인터뷰이를 활

용하고 있었다.

뉴스 제시 평가 수준을 발생·결과 단순 전달, 사실확인, 비판추가, 대안 제시로 살펴봤다. 경제/산업 분야의 뉴스 제시 수준은 <관광특구 파고드는 ‘오피스텔’…무늬만 상업지역?>(9/27), <도심 핵심지역 난개발 우려…복합개발 가능?>(9/28)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발생한 사실, 정부 발표, 연구 결과 만을 단순 전달하고 있었다.

경제/산업 기사의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니, 단일 아이템으로는 ‘2030부산엑스포’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KBS부산 <뉴스9>는 9월에만 3차례 이 소식을 단신으로 전달했다. <부산 아파트값 12주 연속 하락세…10년 만에 최대 폭 하락>(9/9), <부산 아파트 가격 14주 연속 내려…하락 폭 확대>(9/23), <규제 풀렸는데…부산 집값 15주째 하락>(9/30)이라는 제목으로 2~4번째 순서로 소개했다.

시민의 얼굴은 다양한데…뉴스 속 시민은 피해 목격자이거나 피해 당사자

적절하고 균형 있는 정보원 활용은 진실 보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정보원의 경우 기사에서 직접 발언을 인용해 전달하는 ‘인터뷰이’와 기자 혹은 앵커가 멘트를 통해 “~따르면”과 같은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의 출처를 밝힌 경우로 분류해 코딩했다. 어떤 정보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 KBS부산이 주목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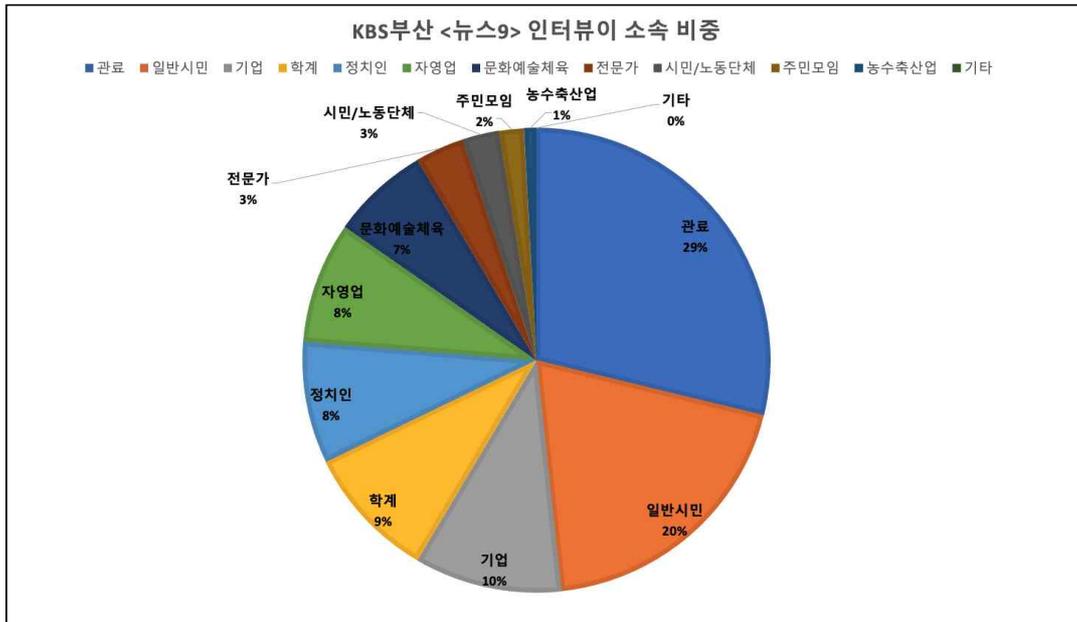
KBS부산 <뉴스9>의 경우 9월 기사에서 등장한 인터뷰이는 총 118명이었다. 전체 기사 209건 중 인터뷰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62건이었다. 기사 3건 중 1건만 인터뷰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뷰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 62건의 평균 인터뷰이는 1.9명이었다(참고 [표 9]). 인터뷰이 포함 기사를 뉴스 주제별로 살펴보니, 경제/산업(18건), 사건/사고(13건), 사회일반(12건) 순이었다.

매체	전체 기사 건수	인터뷰 포함 기사 건수	인터뷰이	평균 인터뷰이
뉴스9	209건	62건	118명	1.9명

[표 9] KBS부산 <뉴스9> 인터뷰 관련 모니터 결과

단순 인터뷰이의 ‘수’ 뿐 아니라, 인터뷰이의 ‘소속’을 따져봤다. 관료가 34명, 일반시민이 23명, 기업이 12명, 학계가 11명, 자영업자와 정치인이 각 10명 순이었다. 관료 인

터뷰는 뉴스 주제 전반에서 나타났고, 시민 인터뷰는 사회일반과 사건/사고 소식에 편중돼 있었다. 시민들은 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발언했다(참고 [그림 5]).



[그림 5] KBS부산 <뉴스9> 인터뷰이 소속 비중

<“국비 끊겨도 동백전 중단 안 한다”>(9/25)에서는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처럼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태풍 피해 대책에 대한 평가 등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뉴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보출처의 경우 일단 기자가 언급하는 대로(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한국부동산원) 기재한 후, 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유목으로 재코딩하였다. 기자 혹은 앵커가 멘트를 통해 정보 출처(~따르면) 밝힌 경우는 148건이었다. 이 중 98건이 단신보도였다. 부산시와 공기업의 발표, 연구 결과, 정책 등을 단순 전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라 하기에는 한계로 보인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50회, 공기업 30회, 경찰·검찰·소방 27회, 정부 22회, 시민단체 7회, 정당 7회, 기업 5회, 부산시의회 4회, 대학 4회, 노조 4회, 울산시 3회, 경제인단체 2회, 주민모임 2회, 국회 1회, KBO 1회.

향후 KBS부산이 지역의 대표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보원의 다양화와 취재 경로 다변화를 통한 심층적, 분석적 보도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 뉴스 81% 단신보도, 정보원은 ‘부산시’이거나 ‘공공기관’

KBS부산 <뉴스9>의 보도 중 토·일 보도만 따로 살펴봤다. 총 6일이었고 보도 건수는 44건이었다. 리포트가 6건, 단신이 36건, 현장 중계가 2건이었다. 단신이 81.8% 비중을 차지했다.

주말 뉴스는 리포트 1건에 단신 5건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9월 주말 리포트 6건은 태풍 3건, 엑스포 1건, 문화행사 1건, 동백전 1건이었다. 주말 단신 36건 중 17건이 사회일반 소식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절반이 코로나19 소식이었다. 사건/사고 소식이 1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자체 행정이나 지역정치인 소식은 8건이었다.

주말 뉴스의 리포트, 단신 기사 모두 주요 정보원이 부산시이거나 공공기관이었다. 44건의 뉴스 제시 수준 모두 발생 결과 단순 전달이었다(참고. [표 10]).

KBS부산 <뉴스9> 주말뉴스 44건	
뉴스형식	리포트 6건, 단신 36건, 현장중계 2건
뉴스주제	지역정치 8건, 경제/산업 5건, 사회일반 17건, 교육/과학/문화/예술/스포츠 2건, 사건/사고 10건, 생활정보 2건
정보출처(기관) *중복코딩	부산시 12건, 경찰·소방 5건, 공기업 7건, 기업 1건, 시의회 2건, 정부 4건, 정당 1건
뉴스제시 수준	발생 결과 단순 전달 44건

[표 10] KBS부산 <뉴스9> 9월 주말 뉴스 모니터 결과

5. 지역민을 위한 지역 공영방송 KBS부산에 대한 시민의 바람

보고서를 시작하며 최근 몇 년간 지역언론은 ‘감소하는 인구수’와 ‘초고령 사회’를 들어 부산지역이 위기라 진단하고 있으며, ‘제2 도시로서의 위상 수호’와 ‘지역 균형발전’이라

는 명분을 내세워 토건 사업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지역언론으로서 부산지역 ‘난개발’ 문제에 천착해 해운대 생활형 숙박시설,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해 왔다. 토건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역시, 공영방송”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9월 부산민연련 모니터 결과 KBS부산 <뉴스9>의 주요 뉴스 주제는 경제/산업으로 ‘2030부산엑스포’와 ‘부동산’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공공기관과 부산시가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됐다. 특히 9월에만 3차례 소개된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 ‘집값 하락’ 소식이 331만 부산시민에게 그날 전달해야 하는 주요 사실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단신 1건이라 치부하기보다 “331만 시민 목소리 중 하나”라는 마음으로,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전달하는데 단신 기사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리포트 기사 보도 이후 변화 지점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방향으로의 단신 기사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그래서, 2022년 9월 KBS부산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제시하고자 했는가?”하는 지점이다. 지역성 확대를 취지로 출범한 KBS부산 <뉴스7>의 첫 소식의 56.2%가 방송권역 외 소식이었으며, 최다 첫 소식은 ‘증시와 환율’이었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만들어지기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 공영방송 KBS부산. 그래서 시민은 KBS부산의 보도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향후 KBS부산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비판하고, 지역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의제와 질문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주길 기대한다.

<끝>

[부록] 코딩유목

<p>항목1. 기입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한다.</p>
<p>항목2. 매체 KBS부산 뉴스9 === 1 KBS부산 뉴스7 === 2</p>
<p>항목2-1. 매체간 중복 여부 중복이면 === 1</p>
<p>항목3. 일자 월/일 양식으로 기입한다. 예) 8/22</p>
<p>항목4. 보도 순서</p>
<p>항목5. 뉴스 코너명/기획명 예. 대담한K 등</p>
<p>항목6. 기사 제목 기사 제목은 앵커가 기사를 설명할 때 나오는 하단 자막을 기준으로 한다. 단신, 스튜디오의 경우는 첫 하단 자막을 기입한다.</p>
<p>항목7. 보도 형식 보도형식은 6가지 경우로 분류한다. 리포트 === 1 단신 === 2 스튜디오 === 3 현장중계 === 4 사전제작영상 === 5 캐스터 === 6</p>

항목8. 뉴스 유형

뉴스유형은 4가지 경우로 분류한다.

스트레이트: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와 같은 의사사건,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과정과 결과만을 단순 전달한 경우 === 1

해설기사: 최근 발생한 사안의 의미, 원인,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보도한 경우/ 해당 기사만의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 === 2/ (한 줄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을 기자가 멘트로 지나가듯이 소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획기사: 시의성은 좀 떨어지나 사회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기 위해 사안의 배경이나 원인 파악, 문제점 진단, 쟁점 정리 등 종합적으로 제시한 경우 === 3

기타: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항목9. 뉴스 주제

전국 정치 === 1

- 해당 내용: 대통령/청와대, 국회/정당/정치인, 법조/검찰/비리, 군사/국방 등 국제/해외 === 2

- 해당 내용: 국제/해외, 북한/통일, 외교 등

지역 정치 === 3

- 해당 내용: 지자체, 행정, 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인 언급 등

경제/산업 === 4

- 해당 내용: 기업, 투자유치(가덕신공항, 2030엑스포 등), 농어촌, 농수축산물 가격, 물가/주가, 건축/건설 등

사회일반 === 5

- 해당 내용: 복지/보건/의료(코로나19), 환경/공해, 시위/파업, 주체 간 갈등 등 교육/과학/문화/예술/스포츠 === 6

- 해당 내용: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미디어, 문화/예술/학술/종교 등

사건/사고 === 7

- 해당 내용: 사건/사고, 범죄, 재난재해(태풍) 등

생활정보 === 8

- 해당 내용: 인물미담/인사동정, 생활정보/상식, 날씨/레저/오락/교통/관광 등

기타 === 9

항목10. 주요 지역

전국 === 1

전국 외 지역 === 2

항목 10-1. 전국 외 지역명

- 전국 외 지역일 경우 해당하는 지역명 기입 부산,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p>항목11. 인터뷰이(사람)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이의 소속과 직급 주관식 기입</p>
<p>항목11.1. 기자 대상 발표</p>
<p>항목12. 정보원(기관) 정보 제공 출처 주관 기입(예, 경찰청에 따르면(->경찰청), 상공회의소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상공회의소) 등)</p>
<p>항목13. 보도자료/기자회견 부산시청 보도자료 기반 기사이면 === 1 기자(앵커) 멘트에 ‘기자회견’ 언급됐거나 뉴스 영상에 ‘기자회견 현장 등장하면 === 2</p>
<p>항목13-1. 13에 해당 하는 기관, 조직명</p>
<p>항목14. 뉴스 제시 평가 수준 발생·결과 단순전달 === 1 사실확인 === 2 비판추가 === 3 대안제시 === 4</p>
<p>항목15. 특이사항</p>